



07-19 (통권 146호)

2007.5.11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4월 소비 심리 개선세 지속
- 韓美 양국의 중앙은행, 정책금리 동결

경영 노트

- 키워드로 보는 해외시장 트렌드

사회 트렌드

- 괄목할만한 교육경쟁력
- 개도국 수준의 한국 어머니 삶

저널 브리프

- 환경경영, 21세기 기업 경영의 필수

洗心錄

- 지식기반 시대에 더욱 빛나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 4월 소비 심리 개선세 지속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 형편, 소비 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4월에 100.1로 3월의 97.8보다 2.3p 상승하여 1년여 만에 기준치 100을 상회함
 - 기준치 100을 상회할 경우 조사 대상 가구 중 향후 경기 등 제반적인 경제 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보다 많음을 의미함
 - 부문별로는 ‘경기’가 같은 기간 89.4에서 95.1로, ‘생활 형편’이 99.7에서 100.7로 크게 개선된 반면, ‘소비 지출’은 104.4에서 104.5로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냄
 - 한편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7.4로 3월의 83.3보다 4.1p 상승함
- 최근 일부 경기 지표들의 개선, 자산 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여 가계 구매력 확충 속도가 빠르지 못할 경우 큰 폭의 소비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韓美 양국의 중앙은행, 정책금리 동결

- 9일과 10일 미국과 한국의 중앙은행은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금리와 콜금리를 현 수준인 5.25%와 4.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함
 - 한국은행은 시중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판단하여 콜금리를 동결하였음
 -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의 금리 동결은 1/4분기 경제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을 상승이 두드러진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대내외적으로 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글로벌 과잉 유동성 등에 의한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 키워드로 보는 해외시장 트렌드

- (개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 변화와 고령화, 비만인구의 증가 등 사회·인구학적 변화가 해외 시장 트렌드에 반영 되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는 의·식·주와 통신 분야에 대해 해외 주요시장에서 주목을 받거나 큰 인기를 끈 상품사례를 조사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제시함
- (내용) 새로운 키워드로 식생활에 ‘재미’와 ‘윤리’가 강조되고, 주생활에 탈(脫)스트레스가 도입되는 등 해외 시장의 새 트렌드가 주목 받고 있음

<분야별 해외시장 주요 트렌드>

분야	키워드	트렌드
식생활	기능성	기능성 식품료품(Functional food) 시장이 계속 커짐
	유기농	2006년 유기농 식품료 시장의 매출은 400억 달러에 이룸
	재미	맛에 재미를 더한 식품이 인기를 끄
	윤리	공정무역 상품, UN에 순이익을 기부하는 생수회사
	포장기술	포장의 편의성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짐
의생활	첨단기술	얼룩이 지지 않는 옷감, 아이팟 재킷, 벌레퇴치 옷 등
	친환경적	유기농 면 의류, 옥수수로 만든 인지오(ingio) 섬유 등
	플러스사이즈	비만인구의 증가에 따라 의류의 사이즈가 커짐
	키즈	아동들의 패션시장이 커지고 고급화됨
	트라이슈머	사용 후 구매를 결정하는 판매방식이 발달(trysumerism)
주생활	탈(脫)스트레스	스트레스 지수 측정기, 스트레칭용 벽 등
	실버	고령화로 노화방지 화장품, 실버 주택 등이 인기
	인스피리언스	집안(in)과 경험(experience)의 합성어로 가정용 와인 제조기, 가정용 사우나 기기 등이 인기
	초간편	일상 생활과 업무를 보다 간단하게 해주는 상품이 인기
통신 생활	컨버전스	여러 종류의 전자제품과 IT의 접목 (윈도우 비스타 등)
	엔터테인먼트	실용성을 넘어서 오락과 유희의 개념이 연관됨
	여성	전자제품 시장에서 여성의 파워가 점점 더 부각됨

- (시사점) 해외시장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시장 공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트렌드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분석을 통한 시장접근이 필요함
 - 신상품 개발, 생산, 마케팅 등 기업 활동 전반에 해외 시장 트렌드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괄목할만한 교육경쟁력

- 교육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져 세계 29위로 기록됨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세계 교육경쟁력에서 한국은 전체 55개 국 중 29위를 차지해 지난해(42위)보다 13계단 높아짐
 - 우리 나라의 교육경쟁력 순위는 2004년 44위, 2005년 40위, 2006년 42위 등으로 하위권이었으나 올해 크게 상승하여 전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였다는 평가임

- 가구당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이 14%에 달하는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가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됨
 - 교육경쟁력이 높아진 이유는 고등교육 이수율 증가, 대학특성화와 구조개혁사업 등으로 교육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투자의 역할이 절대적임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 2002년 13.3%, 2004년 13.8%, 2006년 14.0%)

□ 개도국 수준의 한국 어머니의 삶

- 한국 어머니 삶의 수준이 세계 140개 국 중 46위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2007년 세계 어머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46위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29위)에 이어 2위임
 - 1위는 스웨덴이 차지했고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과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상위권에 위치됨

- 개도국 그룹 중에서는 아동지수 및 여성지수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임
 - '어머니 나라' 순위는 여성의 의료혜택, 교육 수준, 경제 지위, 정치 참여로 따지는 여성지수와 영아사망률, 진학률, 5세 이하 영양실조비율, 안전한 식수 접근율로 측정하는 아동지수를 더해 산정됨
 - 한국이 소속된 개도국그룹 66개국 가운데서는 여성지수 5위, 아동지수 6위로 높은 수준임

□ 환경경영, 21세기 기업 경영의 필수*

- (개요)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특히,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구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환경경영’이 기업 경영의 필수가 되었음
 - 환경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환경경영’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
 - 국제간 거래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진국 시장의 수출 장벽을 뚫으려면 ‘환경 장벽’을 먼저 뚫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음

- (환경경영) ‘환경경영’은 지구환경 문제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경쟁력도 키우고 재무적 이익도 성취할 수 있는 21세기 반도체에 비유할 수 있음
 - 도요타, GE, 소니 등 환경경영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막대한 재무적 이익을 내는 세계적 기업의 사례가 늘고 있음
 - 21세기는 환경이 곧 마케팅이고 생태가 마케팅인 시대로 환경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우리 현황) 우리 나라와 기업은 환경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많이 남아 있음
 - 한국은 CO₂ 발생량 세계 10위, 석유 수입량 세계 4위, 에너지 소비량 853억 달러로 에너지 소비와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국가임
 - 별다른 대책 없이 교토의정서 등 국제 협약에 의하여 CO₂ 배출과 에너지 사용이 규제되면, 우리 경제는 IMF만큼 힘든 시기를 맞을 수 있음

- (시사점) 환경경영은 환경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회사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서, CEO의 결단과 추진력이 가장 중요함
 - 환경경영은 환경 담당 부서의 일이 아니라 연구개발, 조달, 생산, 마케팅 등 전사가 환경에 대한 공유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임
 - 도요타, 소니, 유한킴벌리, 롯데백화점 등 환경 선구자적 기업의 공통점은 CEO가 빠른 결단을 내리고 일찍부터 환경경영을 추진한 것임

* 이 글은 『이코노믹 리뷰』(2007.5.1)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지식기반 시대에 더욱 빛나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노벨경제학상(1970) 수상자이자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새뮤얼슨(Paul Samuelson, 1915~)이 한 학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모든 사회과학 이론들 중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만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자는 맨하탄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저명한 수학자인 울람(Stanislaw Ulam, 1909~1984)이었다.

새뮤얼슨은 대답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David Ricardo, 1772~1823)가 1813년에 발표한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이 이론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타당하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대단한 수학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이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설명을 들었더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중요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들 간에 상대가격이 저렴한 산업에 특화하여 생산·소비하고 남는 것을 서로 교환한다면 개별 국가들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는 리카르도의 주장이 정말로 새뮤얼슨의 말처럼 우리 곁에서 항상 작동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나 쉽게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비교우위의 시각에서 사물과 현상 그리고 역사를 바라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양한 생물 개체군들 곧, 기능이 특화된 많은 생물들이 어우러져 존재하는 풍요로운 생태계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통해 성장을 구가하는 세계 경제의 모습과 흡사해 보인다. 비교우위론은 대학 교육이 전지전능한 한 사람을 키우기보다 왜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많은 지식인들을 길러 내는데 힘쓰고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을 사회가 모으고 이들의 능력을 소통 곧, 교환할 장(場)을 마련한다면 전지전능한 한

사람보다 해당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또한 왜 근대 이전까지 기술적으로 앞섰던 동양이 그 이후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서양에 뒤쳐질 수밖에 없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서양은 지식의 특화 곧, 전문화의 추구로 교육 기조를 전환했던 반면에 동양은 종합지식인 양성에 힘 쏟는 전통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비교우위론은 보여준다.

200년이나 된 비교우위론은 인간 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 진화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전혀 그 빛이 바래지 않고 있다. 지식을 창조할 능력이 모든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어쩌면 리카르도의 이론은 그 중요성이 예전보다 더해지면 더해졌지 결코 덜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지식의 창조는 다양한 지식의 충돌 속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결국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교환할 기회를 마련해줌을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뿐만 아니라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까지 채용하고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하다. 지식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비교우위론이 더 의미가 있음을 확신하고 이를 남보다 먼저 실천에 옮긴 그들이 오늘날 최고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리카르도 이전으로의 퇴행을 앞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과거에 종사하고,
몽상가는 미래에 종사하지만,
현명한 자는 현재에 종사한다.**

- 니콜라 샹포르(1741-1794) : 프랑스의 작가